

石

炭

趙 柄 和
(大韓石炭公社 弘報室長)

石炭, 일컬어 '흑진주', '2억5천만년전 예비품'이라고도 한다. 어떤 이는 석탄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면서 '태양에너지의 통조림'으로까지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지 벌써 수십년. 그동안 석탄은 수많은 가정의 연료로서 그 기능을 다해 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요근래부터主婦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급기야 석탄산업을 사양화산업으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역군'이라 치켜 세우며 내일의 꿈을 위하는 사람들로 묘사되던 우리의 석탄생산 일꾼들을 요즘은 평생일터를 잃고 떠나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화제를 삼고 있다.

2억5천만년의 産苦를 거쳐 鑛員들의 피와 땀으로 캐어지는 석탄. 처음에는 오늘의 이 각박하고 몰인정하기까지한 세대에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치고 어느 한사람도 놀라와 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올것이 왔다'는 식의 자포자기의 심정보다는, 업계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최선을 경주하는 모습이 여러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캐기도 힘들지만 팔기는 더욱더 힘들게' 오늘의 석탄업계의 현주소.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제를 쓰지말자는 호소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멀리 가 있다. 편하게 쓸수 있는 석유나 가스가 이미 연탄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정부마저도 공공기관과 주거단지엔 조차 공해방지를 위해 연탄류 사용을 금지시켜 석탄업계에 더욱 주름살이 가게 하고 있다.

이미 연탄보다 싸게 되어버린 석유, 가스에 전기까지 가세하여 석탄의 숨통을 조르고 있고, 또 그 때문에 石炭價는 더이상 인상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석탄산업 스스로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엔 여러모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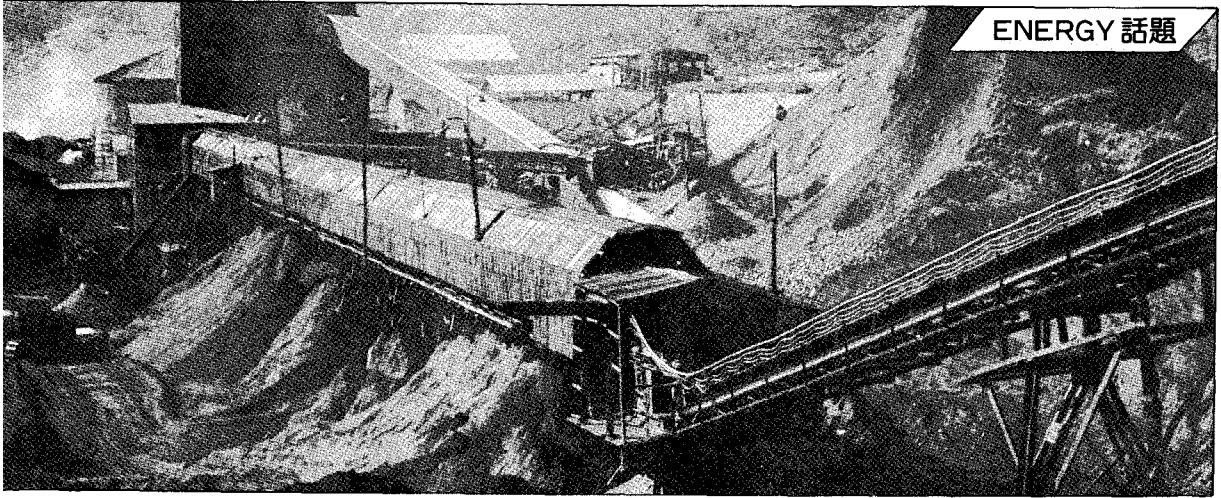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엔 더욱 슬픈 오늘의 현실이지만 잠깐 석탄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가보자.

지금으로부터 2억5천만년전, 지구상의 식물들은 지각의 변동에 의해 땅속에 묻혀 버렸고 지압과 지열에 의해 炭化되어 어느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 있어 석탄의 역사는 신라 진평왕 31년(서기 609년) "모지악(毛只嶽)에서 땅이 땀다"라는 기록이 처음이었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1920년대 지금의 태백시 금천동에 삼척탄맥의 줄기를 뚫어 개발을 시작했다는 開鑛역사 훨씬 이전인 조선조말 광무2년(서기 1898년)내장원소속 광산일람표에 51개 광산중 12개 탄광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그후 계속해서 석탄은 산업용, 민수용으로 국가경제와 그 맥을 같이 해왔다.

석탄개발이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에 석탄하면 노동력 착취와 강제징용의 불명에 스러운 단어와 연결되었고 힘든 작업으로 말미암아 鑛員들조차도 '最後의 人生幕場'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찌 석탄이 좋지 않은 추억만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겠는가 석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산림은 어찌 푸른숲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체연료를 찾지못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연료, 난방비때문에 고민을 했었을 것인가.

어찌 그뿐이라. 그동안 석탄이 생산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배우지 못해 일생을 한에 맺혀 살아야 할 부모들의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는가. 强辯처럼 들릴줄 모르는 여러가지 기여도를 차치해 놓는다 하자.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패배의식을 해결코자 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시의 고생을 각오하면서 人生幕場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공은 쉽게 잊어버려도 좋은 것인가.

도심을 멀지않치 피해 변두리 먼곳에 자리잡은 석탄하치장과 연탄공장들은 나중에 그것도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이들로 부터 공해의 산실이라고 일제히 한목소리로 배척받게 될 때 아무런 기득권도 주장못하고 그저 죄인인양 묵묵부답 일 수 밖에 없는게 오늘의 論理라는데.....

年前, 석탄생산의 현장을 소비자대표들이 방문하여 입갱(入坑)을 한적이 있었다. 단순히 탄은 땅에서 구덩이 파서 파내는 정도로 알았던 그들이 막상 들어가보니 지하 그것도 해발 수백미터이하로 들어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짜내며 탄을 캐는 鑛員들을 보며, 앞으로 연탄을 쓸대 캐내는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결코 가격이 비싼게 아니라는 걸 여러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왜 그렇게 까지 힘들게 캐서 몇시간이면 타서 없어질 탄을 만드느냐, 더 쉽고 편한 가스나 석유가

있는데 하고 反問하고 있지 않은가. 맞는 얘기다. 힘들게 캐낼 필요는 없다. 사용할때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다고 안캐수는 더더욱 없지 않은가.

석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6만명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30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몇년내로 석탄합리화계획에 따라 그중 반정도가 떠나게 된다.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노력으로도 앞으로 3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석탄산업이 어디로 나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100을 투입해도 100을 다 건져내기 힘들게 석탄산업의 生理, 16억톤이나 묻혀 있지만 아무리 경제성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그 절반도 못캐낸다는데, 그것도 90%정도가 갭구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지하수를 뿔아올려 가면서 까지 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 어려움에 대해 무조건 사랑과 동정을 구하지만은 않는다. 사고가 많다해서 全産業中 보험요율이 가장 높고, 퇴직금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恨을 가슴에 남겨준다는 石炭産業의 오늘에도 희망은 있다.

他연료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고, 온실같았던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탈피하여 自生力을 키우며, 석탄 이용기술의 개발을 통해 더이상의 수요 하락을 막는다면 石炭産業의 앞날은 더이상 먹구름만은 아닐 것이다.

가장 탄탄한 직업이 鑛員이라는데.